OPINION

독자 옴부즈맨 코너

'제복 공무원 홀대'에 공감

중앙SUNDAY는 1면과 4~5면에 걸쳐 소방관·경찰·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 분석했다. 한마디로 위험한 직무에 대한 보상, 유족의 생계 보장, 순직후 추모 등 여러면에서 그들의 노고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좋은 기획이었다. 필자는 집에 불이나서 소방관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그 고마움을 잘 알고있다. 제복 공무원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인다. 출동현장은 화재·사고·조난·수해 등 항상 난리가 난 곳이고 편한 근무처는 하나도 없어 보인다.

급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끔찍한 현장을 수습하고 나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나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에 대한 치유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 지도 궁금하다. 또 체력이 좋아야하는 일이니 만큼 영양도 충분히 섭취해야 될텐데 출근 후 또는 출동 전후에 식사는 뭘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다. 수시로 근처 소방서에 음식을 기부한다는 식당주인이 있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중단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나면 대책과 정책으로 모든게 해결될 듯이 하다가 곧 용두사미가 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 차제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복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로 자랑스럽게 근무하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겨 주기를 바란다.

1면과 7면은 태국 푸미폰 국왕 사후의 추모 애도 상황과 정치불안이 장기화 될것 같다는 내용을 실었다. 14~15면은 내년 중국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 개편, 엘리트 지도자 육성, 미래 등을 분석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 2개 지면을 각각 할애한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고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어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두 기사 모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언급이 없어 아쉽다.

10면은 미술품 경매 경향을 분석했다. 미술작품 구매도 재테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분야인데 제목과 기사 내용이 사놓으면 괜찮다는 방향으로만 흐른 감이 있다. 주의할 점과 실패 사례도 자세히 소개해 주었으면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겠다.

장성지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 부사장, 한국PR협회 부회장 역임. 전·현직 주요 대기업 홍보책임자들의 모임인 한국CCO클럽 대표 간사.

S매거진 6면은 얼마 전 아깝게 세상을 떠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추모 글을 실었다. 이 글은 그의 노력, 열정, 취미, 인간적인면 등 음악세계를 뱃어난 삶의 흔적을 가깝게 계속 지켜봐 온 음악 관계자가 쓴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으로 *S매거진*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다.

연필과 함께 떠나는 여행

WEB SUDOKU

			1	3	6			
8	5			4			2	
		3			8	4	1	
9					7			
		5				1		
			4					8
	3	6	9			2		
	9			6			5	1
			8	1	3			

〈정답〉

스도쿠는 9×9 네모에 1부터 9까지 숫자를 집어넣는 퍼즐입니다. 단, 가로 또는 세로 한 줄에 같은 숫자를 두 번 쓸 수 없습니다. 또 3×3 작은 네모 속 숫자도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인재 제대로 키우는 중국 공산당

Outlook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
spring1388@naver.com

중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찬 기대도 많고 비관적인 전망도 많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중국이 아편전쟁 이전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다는 점이다. 더 특이한 것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민족의 땅이 다시 중국으로 편입되어 영토가 점점 더 넓어졌다는 점이다. 1921년 창당해 무려 10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둔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다. 많은 비관적인 전망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지도부가 정한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고 있다. 중국 경쟁력의 원천은 한마디로 '엘리트 통치 시스템'이다.

2011년부터 2년간 중국 칭화(靑華)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학생 기숙사가 밤 10시에 불을 끄면 불 켜진 복도에 나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충격이었다. 베이징(北京)대나 칭화대를 입학하려면 100만 명 중에 50등 정도, 해야 한다. 지방 성(省)급 단위의 명문 대학도 성 하나가 한국 인구 정도이기 때문에 입학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되는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엘리트들이 많다. 지(智)·덕(德)·체(體)를 겸비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공청단(공산당 청년단)과 공산당원(18세부터 가입 가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민간으로 엘리트가 많이 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공산당 간부는 엘리트에서 선발되는 비율이 높다.

중국 공산당이 약 200년에 걸쳐 엘리트를 철저히 훈련, 성장시키는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도자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중앙-지방-중앙 근무의 경험을 쌓게 한다. 경제와 사업을 총괄하다가 정치(종합)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배치되고, 이후 다시 사업, 경제부서로 배치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력 강한 관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능력이 인정되면 당이 보호한다. 경력관리를 해주면서 지도자로 키워 나간다. 지도자의 성장이 예측 가능해지고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이 높아진다.

정책을 집행할 때는 작은 단위 두세 곳에서 시범 실시를 해보고 오류를 체크한 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범 정책이 성공하면 '따라 배우기'를 실시한다. 정책과 인물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중국인들은 "세 명 이상이 있는 곳엔 공산당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간부 엘리트들이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얘기다. 엘리트들은

지방·중앙 경험 쌓도록 엘리트 파견
중앙 행정조직서 한 명씩 종합 평가
성적표인 '당안' 기초로 데이터 관리
지도부는 집체 학습 통해 비전 공유

은 행정부와 사회 각 조직, 그리고 국영기업 등에 고루 파견되며 업적평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정량 평가가 기본이고 정성 평가도 아루어진다. 심지어 인사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두기도 한다.

한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전부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중국에서는 한 사람의 모든 성적, 활동 등이 기록되는 당안(檔案)이란게 있다. 이 당안은 본인은 볼 수 없다. 당은 이것을 기초로 데이터에 근거해 인재를 관리한다.

지방의 성장이나 서기들의 박식함에도 놀랐다. 화장품 이야기가 나오면 세계 화장품 성장 추이, 성분, 아모레 같은 한국 화장품의 장점, 기능성 식품과 연계성 등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냥 주워들은 지식이 아니라 자세한 통계를 근거로 말하고 있었다. 이런게 가능한 건 공산당의 집단 교육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당교(黨校)를 통해 세계 경제, 세계 군사 안보 동향, 세계 과학기술 동향 등을 교육받고 평가받는다.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도 40일에 한번 꼴로 일명 '집체 학습'이라는 집중 학습을 통해 비전과 정책을 공유한다. 사회의 엘리트들을 당의 이름으로 뽑수한 뒤 이들을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국가 이익에 부합시키는 엘리트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스템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첫째, 우리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국가 인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 기업-학계-정치-NGO 인재를 망라하는 범 국가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둘째, 최고의 엘리트를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양성시킬 것인가. 셋째, 정책과 인물들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하여 예측가능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자문해봐야 한다.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해 나가는데 중국 엘리트 시스템은 의미있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서구 정당 모델과 중국 공산당 모델이 능력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서구 정당은 대중에 의해 엘리트가 선출되는 시스템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정된 선거와 추천으로 엘리트가 탄생하는 시스템이다. 어느 쪽이 우월하다 할 수 없고,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힘은 위대하다'거나 '대중은 오늘을 보고,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본다'는 두 격언은 모두 맞는 말이다.

이제 두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네스트 자본주의, 네스트 민주주의, 네스트 세계정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새 질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삶의 방식 열다섯 번째 질문

만일 외부에서 구루를 찾고 있다면

이지현
줄리안 리 앤 컴퍼니 대표, 아르스비테 발행인

불교에 조사(스승)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있다. 외부의 우상에서 진리를 찾지 말라는 가르침인데, 이를 유머러스하고 기발하게 보여주려한 사례가 있다.

비크람 간디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도계 미국인이다. 힌두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명문대학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인도의 요가가 미국에서 큰 붐을 일으키고 많은 서양인들이 자기 부모 나라의 영적 전통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현상을 보며 의아해한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그는 소위 영적 구루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을 취재하지만 대부분 가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아침마다 정성을 들이던 힌두교의식과 그 때 느꼈던 깊은 평화로움을 기억한다.

구루는 바로 내 안에 있지 외부에 있지 않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비크람 간디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한다. 그는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른다. 그리고 요가수업을 받은 뒤 티셔츠와 청바지를 벗고 인도의 구루 같은 전통복장을 걸친다. 완벽한 미국식 영어발음을 감추고 인도에서 것은 사람 같이 말한다. 영적 능력을 가진 '쿠마레'라는 가상의 구루에 대한 몇 편의 동영상으로 가짜 신분을 만든 후,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구루 행세를 시작한다. 하나 둘씩 그를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고, 쿠마레는 그들에게 새로운 요가동작과 명상법을 가르친다. 물론 모두 간디가 직접 만들어낸 것들이다. 심지어는 과거 많은 현자들이 그랬던 것 처럼 이 모든 것은 허상이며 자신도 허상일 뿐이라는 '진실'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구루와 힐링문화의 현실을 조금은 장난스럽게, 조금은 아프게 꼬집기 위해 시작한 이 실험은 뜻밖의 반전으로 이어진다. 그를 믿는 제자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털어놓는다. 때로 어떨 결 몰라하면서도 그들의 고백을 듣는 쿠마레의 눈빛은 갈수록 진지해진다.

쿠마레의 가르침은 하나다. 내면의 구루를 찾으라고 주문한다. 그 구루를 만난다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그 조언대로 살아보라고 한다. 제자들은 쿠마레로부터 찾으라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상적 모습을 향해 서서히 변화를 일으킨다.

'쿠마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이 실험은 비크람 간디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끝난다. 제자들 앞에 선 그는 "나의 이름은 비크람 간디입니다. 쿠마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구루입니다"라고 말한다. 쿠마레는 간디 자신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현실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주문했던 것처럼.

이 실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고단한 마음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잔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상에 기대고 있는지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외부에서 찾지 않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마치 그런 것처럼(as if)" 살면, 그렇게 되듯이, 힌두교에는 '아바타'라는 개념이 있다. 신적 존재가 다른 몸을 빌려 이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인터넷의 아바타도, 영화 '아바타'의 콘셉트도 여기서 온 것이다. 부처도, 조사도 우리 내안에 있다. 내면의 구루를 찾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신성이 내재하는 아바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